

2020
고3 5모

2020년 시행 고3 5월 학평 국어 이용악 동면하는 곤충의 노래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산과 들이(공간적 배경)

높은 풍경(부정적 이미지의 배경)에서 양상한 계절(문제 30번에 제시된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를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음)(부정적 의미)을 시름할 때(부정적 시간)

나(시적 화자)는 흙을 뒤지고 들어왔다(부정적 공간에서 부정적 시간을 보내면서 화자가 한 행위)

차근 달빛(화자가 피하려고 한 대상)을 피해

[둥글소(곤충)의 앞발](화자가 피하려고 한 대상)을 피해

나(시적 화자)는 깊이 땅속으로 들어왔다(달빛과 둥글소의 앞발을 피해 화자가 행위)

멀어진 태양(희망, 긍정적 이미지)은

아직 꺼머썩썩(색채이미지)한 의혹의 길을 더듬고

지금 태풍이 미쳐 날뛴다(부정적 현실)

얼어빠진 혼백(사람의 몸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거느리고 목숨을 붙어 있게 하며, 죽어도 영원히 남아 있다는 비물질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지온(땅 걸면이나 땅속의 온도)을 불러 곡성(땅 걸면이나 땅속의 온도)이 높다

그러나 나(시적 화자)는

내 자신의 체온에 실망한 적이 없다(강인한 생명력)

온갖 어둠(부정적 상황, 부정적 현실)과의 접촉에서도

생명은 빛(희망, 긍정적 이미지)(어둠과 빛은 명암의 대비)을 더불어 사색이 너그럽고

갓은 학대를 체험한 나(시적 화자)는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리라(의지)

풀풀의 물색으로 평화의 의장도 꾸민다

얼음 풀린(겨울이 지난다는 것을 부정적 현실을 지나 긍정적 상황으로 나아갈 것임을 의미)

넷가에 버들이 휘늘어지고

어린 종다리 파아란(시적 허용) 항공을 시험할 때면

나(시적 화자)는 봄별 짜듯한 땅 위에 나서리라

죽은 듯 눈감은 명상-

나의 동면은 위대한 약동의 전제다(제목이 '동면하는 곤충의 노래'이므로 시적 화자가 곤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의인화)

■ 핵심 정리

- 갈래 : 현대 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사색적
- 주제 : 암담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 특징
 - (1) 동면하는 곤충을 화자로 설정함
 - (2) 의인화를 통해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나타냄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동면하는 곤충을 화자로 설정하여 일제 강점기의 혹독하고 암담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동면하는 곤충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녀 능동적으로 추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인고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킨다. 그런데 이때 곤충이 떠올리는 봄에 대한 전망은 당대 현실이 극복될 것이라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짐작하게 한다.